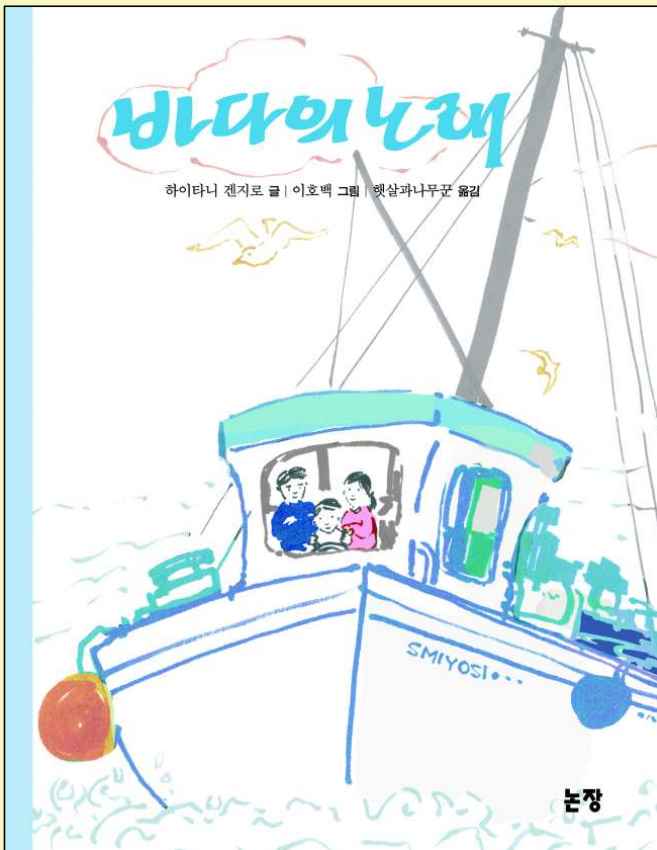




동화는 내 친구 012

바다의 노래

독후활동지



하이타니 겐지로 글 / 이호백 그림
햇살과나무꾼 옮김

건강한 생명력으로 빛나는 아이들,
친구 같은 선생님,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른들,
그들이 함께 부르는 바다의 노래!

우리 시대 존경받는 작가이자 교육자
하이타니 겐지로가 들려주는 삶의 노래!

활동 목표

1.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의 줄거리를 정리할 수 있다.
2. 바다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그에 얽힌 사람들의 삶을 알 수 있다.
3.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기사문을 쓸 수 있다.

◎ 읽기 전 활동

- ☞ '바다'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떠오르는 모든 것들을 단어로 적어 보세요.
(예: 물고기, 휴가, 배 등)



- ☞ 《바다의 노래》에 나오는 어휘를 알아봅시다.

1. 밑줄 친 낱말의 뜻을 골라 보세요. 또 그 낱말을 넣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겐타는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중얼거렸다. 수업 내용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 ① 밖에서 안으로 이동하다. ② 말이나 글의 내용이 이해되어 기억에 남다.
③ 수입 따위가 생기다. ④ 전기나 수도 따위의 시설이 설치되다.

→ 엄마의 야단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 1) 이자키가 아니라 가나코라는 말이 불쑥 튀어나오는 바람에, 겐타는 스스로도 깜짝 놀랐다.

- ① 기압의 변화로 일어나는 공기의 움직임
②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
③ 뒷말의 근거나 원인을 나타내는 말
④ 남을 부추기거나 얼을 빼는 일

→

- 2) 외출남시꾼 마사키 아저씨는 괴짜로 통한다.

- ① 막힘이 없이 들고 나는 모습 ② 어떤 곳에 무엇이 지나가다.
③ 말이나 문장 등이 적절하게 이어져 나간다.
④ 어떠한 자격이나 이름으로 알려지거나 불려지다.

→

3) 그런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낚시꾼은 어디에도 없었다.

① 누웠다가 앓다.

② 어떤 일이 생기다.

③ 잠에서 깨다.

④ 몸과 마음을 모아 나서다.

→

한자를 배우 보아요!

사람들은 진지해졌지만, 안타깝게도 고기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五(다섯 오) / **里**(마을 리, 마을 이, 속 리, 속 이) / **霧**(안개 무) / **中**(가운데 중)

깊은 안개가 5리나 끼어 있는 속에 있다는 뜻으로, 무슨 일에 대하여 방향이나 상황을 알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알고 보면 더 재미있어요!

<바다의 노래>에 나오는 물고기들



자주복



삼치



가자미



넙치



◎ 내용 이해

☞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바다의 아이들과 어른들

겐타와 요시마사, 도루, 미쓰요는 바닷가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집의 아이들이다. 어업에 종사하는 어른들은 물고기보다 쓰레기가 더 많으며 걱정이 많다.

선생님과 학교 친구들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며 아이들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노리코 선생님은 반 아이들에게 함께 바다에 대한 공부를 해 보자고 한다. 가나코를 비롯한 몇몇의 아이들이 바다에 대한 공부를 시작한다.

◎ 겐타는 일등 어부가 되는 게 꿈이다. 아빠와 함께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면 뒤숭숭한 마음도 순식간에 상쾌해진다. 바다를 좋아하는 노리코 선생님이 곁에 있어서 더욱 좋다.

◎ 어느 날 겐타네 학급회의 시간에 ‘선생님의 편애’라는 안건을 반 아이들이 올린다. 바로 다음 사건 때문이었다.

◎ 요시마사의 아빠가 새 배를 샀다.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까지 모두 초대해 성대하게 잔치를 벌였고, 요시마사는 설날과 추석에 한꺼번에 온 것 같다고 좋아했다. 그런데 며칠 후 요시마사의 아버지가 해양 경찰대에 잡혀 간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였다.

◎ 바다의 아이들과 가나코, 마사키 아저씨와 노리코 선생님 들이 겐타네 집에서 복어 잔치를 연다. 값도 비싼 귀한 복어를 세 마리나 요리해서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겐타와 겐타의 아빠는 동쪽 한계선 근처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다른 조합 어부들과 시비가 붙는다. 다른 조합의 어부들은 다짜고짜 겐타의 아빠에게 폭행을 휘둘렀는데,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서였다. 그 사건은 이런 내용이다.

◎ 바다에 대해 공부하기로 한 아이들은 ‘물고기가 왜 줄어들었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 이들이 발표한 물고기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나는 대로 써 보자.

☞ 등장인물이 되어 자신을 소개해 봅시다.

난 겐타 아빠야. 말주변이 없긴 하지만 누구보다 겐타를 사랑하지. 바다 사나이로서의 의리도 있고 말이야.



난 겐타야.

내 이름은 가나코.

난 노리코라고 해.



외줄낀시 하면 나 마사키를 빼놓을 수 없지. 사람들은 나더러 독불장군이라 하지만 다 이유가 있다고! 난 바다가 황폐해지는 게 모두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해.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물고기는 줄어들고 어업도 망하고... 그런데도 반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난 못마땅한 것뿐이라고!



◎ 주제 이해

☞ 본문에 나오는 내용으로 함께 토론해 봅시다.




선생님 : 교과서만 공부해서는 바다의 여러 문제에 대해 알 수 없어요. 고기잡이로 살아가는 집의 아이들한테 이것저것 배우면서 공부를 더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가즈오 : 교과서 이외의 공부는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전 비행기 조종사가 꿈인데, 어업은 저랑은 상관없는 일 아닌가요?

마쓰오 유키 : 나는 선생님 생각에 찬성이야.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다고 비행기만 조정할 줄 알고, 컴퓨터 다루는 사람은 컴퓨터만 잘 다루면 되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기는 모의 법정입니다. 여러분이 가나코라고 생각하고 가나코의 입장을 변론해 보세요.**

재판장 : 이번 사건은 가나코 엄마가 갑자기 전근을 가게 되어 가나코도 함께 전학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가나코 엄마 측 입장은 가나코가 전학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가나코 측 입장은 전학을 가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자, 양측 변호인들은 각각의 입장에서 변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나코 엄마 변호인의 변론 :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가나코가 전학을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장 친구들과 헤어지게 섭섭한 가나코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빠와 함께 사는 건 그동안 살아왔던 환경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아빠도 재혼 상대가 있는 상황이므로 새로운 가정환경에 적응하는 건 가나코에게 더 큰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코 엄마의 직업 특성상 자주 전근을 가야 하는데, 계속 아빠와 지낼 수도 없는 문제이고요. 새로운 친구는 전학 간 곳에서도 충분히 사귄 수 있습니다. 노리코 선생님만큼 좋은 선생님도 얼마든지 많을 테고요. 엄마와 함께 살아가려면 힘들더라도 가나코가 엄마와 함께 다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나코 변호인의 변론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가나코가 전학을 가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겐타의 꿈은 일등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겐타는 아빠와 함께 배를 타고 나가 직접 고기를 잡기도 하면서 어업에 대해 하나하나 배워갑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요?

그 일을 하고 싶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내 꿈을 위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써 보세요.

☞ 오늘 밥상에 오른 음식들을 떠올려 봅시다. 그 음식들이 내 밥상에 오르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을지 생각해 봅시다.

	<p>밥 ← 엄마가 밥솥에 밥을 한다 ← 슈퍼에서 쌀을 산다 ← 쌀을 공급하는 중간도매상이 슈퍼나 마트에 쌀을 공급한다 ← 트럭 운전수가 쌀을 운반한다 ← 정미소에서 벼를 정미해서 먹기 좋은 쌀을 만든다 ← 농부가 땀을 흘리며 벼농사를 짓는다.</p>
	<p>김치 ← 엄마가 김치를 담근다 ← 슈퍼에서 배추를 산다 ←</p>
	<p>생선 ←</p>

☞ 겐타네처럼 어업에 종사하는 바닷가 사람들은 바다가, 어업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생각해 봅시다.

예전의 바다, 어업

- ▶ 외줄낚시나 그물로 소량의 물고기만 잡았다.
- ▶ 자연산 물고기만 잡았다.
- ▶ 바다에 고래가 많았다.

현재의 바다, 어업

- ▶ 고기잡는 도구가 발전해서 대량의 물고기를 한꺼번에 잡는다.
- ▶ 물고기 양식을 한다.

좀 더 알아볼까요

국제포경조약(IWC)

석유가 주에너지원으로 쓰이기 전에는 고래 기름이 많이 사용되었다고 해요. 당시 사람들은 마구잡이로 고래를 잡아들여서 고래가 거의 멸종될 지경에까지 이르렀지요. 멸종 위기에 놓인 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조약이 국제포경조약이에요. 1949년에 만들어졌고, 우리나라는 1978년에 가입하여 고래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합니다.

☞ **바다가(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은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예) 물고기를 비롯한 먹을거리를 준다.

☞ **바다가(자연이) 오염되거나 파괴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바닷속 생태계가 파괴되어 물고기가 줄어든다.

☞ **바다(자연)를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예)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지 않는다.

☞ **신문 기사에서 환경과 관련한 기사를 찾아 스크랩해 보세요.**

예) 일본 방사능 유출에 대한 기사 등,

☞ 환경기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기사문을 작성해 봅시다. 기사문 작성이 힘든 친구는 환경과 관련한 기사를 스크랩해 보세요.

◆ 기사문 작성 팁

기사문은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일이나 알아야 할 일들을 적는 글이에요. 흔히 기사문은 6하 원칙에 따라 글을 써야 한다고 해요. 즉, 누가(인물), 언제(때), 어디서(곳), 무엇을(사건), 왜(원인이나 이유), 어떻게(상황이나 방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지요.

기사문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사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게 목적인 보도기사, 특정한 문제에 대해 글쓴이의 입장을 밝히는 논설기사, 어떤 사건에 대해 보다 상세한 설명을 곁들인 해설기사, 기자가 직접 사건을 취재하고 느낀 바를 적는 탐방기사, 특정 인물과의 대화로 얻은 대담기사 등이지요. 여러분도 어떤 주제를 다룰 것인지 선택하고, 기사의 형식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결정해서 기사문을 완성해 보세요.